



# “80년대 종계 개량은 이렇게 변한다”

— 유병현 박사와의 對談 —

## 서문

현재 호주의 CSIRO (호주연방정부 과학산업연구기구)의 축산국에서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유병현 박사가 구미와 일본을 거쳐 일시 귀국하였다. 국산계의 계속적인 개발로서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호주의 종계개발동향과 구미 각국 종계업계의 동태와 육종방향,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종계육종사업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 전문가인 그의 입장을 들어본다.

**記者:** 양계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면으로 보아 호주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계의 수입금지, 이에 따른 청결한 방역상태, 끊임없는 국산계의 개량, 에그보드 시스템 등 본지에서도 호주의 양계산업에 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를 한바 있습니다만 최근 호주 산란계의 능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현:** 지금까지 호주에서 개량된 닭은 자체능력 검정성적 뿐이었고 다른 외국계와 비교시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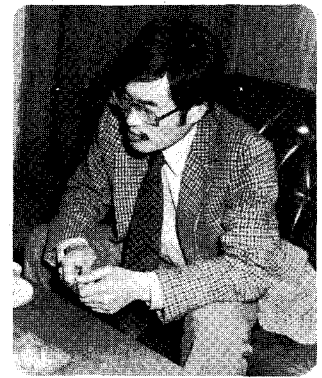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행하는 산란능력검정에 세번 출품한 바 있었는데 그때 성적을 보면 호주의 산란계가 미국, 캐나다 영국의

최상위 갈색산란계의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백색레그혼과 흑색 오스트라롭을 교잡시킨 유색란을 생산하는 닭을 대부분 기르고 있습니다.

**記者:** 현재 산란계의 능력은 250개에서 한계를 맞는것 같은데 호주 산란계의 육종방향은 지난 78년 8월 본회를 방문했던 쉘든박사를 통해 산란간격을 줄이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실험의 구체적인 진척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유병현:** 산란수의 증가가 더 이상 어려워지라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육종방법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개량속도를 유지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



운 개량방법을 쓰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대로 저희 연구과제는 어떻게 하면 산란간격을 줄이는가에 관한데 있습니다. 현재 백색레그호온과 흑색오스트랄로프의 15세대간 선발시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품종간 교배시 시중 산란계보다 11~12%의 산란율이 증가되고 그 반면 평균난중은 1.3g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실험을 시작할때 산란간격이 26-27시간 이던것이 현재 흑색 오스트랄로프 pure line에서 23-24시간으로 3시간이 줄었습니다.

이 산란간격을 단축시키는 실험에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며 20시간이 닭의 난자형성에 최소시간이 되므로 그 20시간이 한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란간격이 주는 반면 난중이 줄고 난자질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산란간격이 1시간 줄면 산란율은 8% 증가되는 셈으로 이것은 경쟁이 치열한 종계업체에서 보통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시장을 독점 할수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記者:** 따라서 호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계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게 되겠군요.

**유병현:** 호주에서는 모든 가금에 관한 국가 정책에 가금생산에 관한 협의회(Australian poultry production conference)에서 결정됩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가금학계, 업계, 행정계에서 광범하게 참가하여 각종 문제점이 토론되는데 79년의 이 협의회에서도 종계수입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호주 종계의 능력이 다른 나라의 닭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수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호주는 종계를 수입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記者:** 우리나라는 난중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심하여 심할때는 규격사이 5-6원의 차이가 날때가 있을 만큼 큰알에 대한 선호 경향이 현저합니다. 사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은 체구로 줄이겠다는 육종방향은 변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유병현:** 백색레그호온은 이제 더 이상 체중은 안 줄일것입니다. 그러나 갈색은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5-10년후면 갈색과 백색이 사료효율이나 능력 모든 것이 비슷해 질것입니다. 외국종계회사에서 갈

색계 개발이 시작되지 얼마 안되는데 이제 미주쪽 종계회사들이 갈색계 육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색계의 거의가 레그혼인데 비해 갈색계는 품종이 많아 유전적변이도 다양해서 개량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記者** : 갈색난과 백색난에 대한 외국의 인기도는 어떻습니까?

**유병현** : 지역마다 다르지만 갈색난의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불란서 중동, 아시아는 갈색난이 더 인기가 있고 영국도 요즘 갈색난 가격이 비싸며 독일은 백색난이 더 많습니다. 갈색난이 백색에 비해 난각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리하나 육반, 혈반에 대한 점란이 곤란한 점등의 불리한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백색산란계의 개량이 어느정도 한계에 와 있으므로 유색계의 집중적인 개량은 짧은 기간내에 백색과 유색의 능력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記者** : 호주에 계신 동안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특히 이번 기회에 직접 파악하시고 난후의 우리 육종의 가능성 이랄까 문제점이랄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유병현** : 우리나라 육종사업에는 크게나눠 세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양계산업의 근본적인 안정입니다. 요즘처럼 계속적으로 기복이 심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하게 되고 따라서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종계개량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내시장이 작을뿐 아니라, 좁은 시장에 수입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막대한 연구비가 들어야 하는 육종사업에 채산

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기적이고 강력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종계개량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수입물량을 감소시킨다거나 국가예산을 보조해주어야만이 종계개량사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記者** : 우리가 국산계의 종계사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할때 외국계와의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유병현** : 사실상 산란계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능력개량은 거의 정지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많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브로일러는 지금도 계속 능력의 상향곡선이 오르는 때라서 경쟁은 어려울 것입니다만 국내시장의 특수성에 맞추어 우리에게 맞는 것만은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능력이 좋아해서 무조건 외국계를 수입할게 아니고 장래를 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지요. 국산계를 사용하면 방역문제 등 관리상의 여러가지 특이 따르게 됩니다.

종계뿐 아니라 종축사업은 작은 나라에서는 국가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종계회사들의 힘을 합치고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또 국가적으로 시장을 확보해 주고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나라 종계개량사업도 낙관적인 것이 되겠지요.

좋은예가 불란서에 있는 모든 육종회사가 ISA로 통합해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볼때 여러회사가 통합해서 뭉쳐 힘을 합하면 개량속도가 훨씬 빨라지리라 생각됩니다.

**記者** :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종계사업에서의 손해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도 능력이 큰 차이가 없으면 우리것을 썼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유병현** : 일본도 종제업체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편인것 같습니다. 고또가 그렇게 큰 회사인것 같아도 국내 시장 점유율은 극히 적은편입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편이지요. 양돈 업체도 비슷한 추세인데 종돈개량을 위한 10년간 연구비를 한꺼번에 책정해 준다든지 하여 장기적인 개량사업을 위해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우리 국산계가 당장은 능력이 뒤지더라도 장기적인 개량가능성 즉 몇년후에는 외국계의 능력과 비슷해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외국계 도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종제사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은 보기 힘든 사업입니다. 영국의 ROSS 종제회사만 해도 10년간 산란계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량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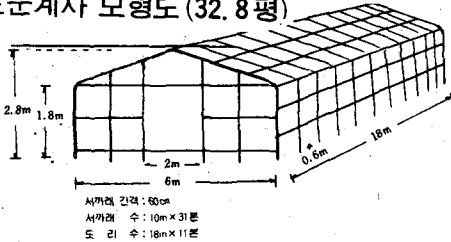
**記者** : 외국의 어느농장들을 보고오셨는지요

**유병현** : 영국의 로스, 화란의 허케코 독일의 로만 캐나다의 세이버 미국의 바브콕 일본의 고또 등에 들렀었습니다. 이들농장 육종학자들과 육종방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는대로 이에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記者** :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계사용 파이프 하우스

표준계사 모형도 (32.8평)



### 1. 파이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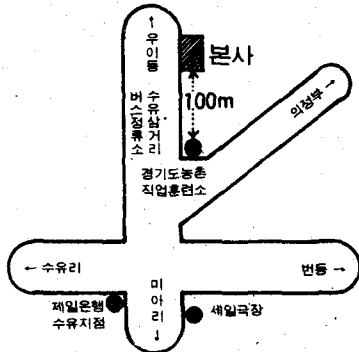
φ 22mm, φ 25mm 펜타이트파이프 (특수아연 도금 파이프)를 사용하여 녹슬지않고 수명이 깁니다.

### 2. 완전 조립식

독창적 조립부속품으로 일체 용접없이 조립, 해체와 이동이 간단합니다.

★ 희망규격·설계·시공 상담드립니다.

★ 지붕덮개(보온덮개)를 적시에 공급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파이프 하우스 제조 전문 메이커

## 풍념산업주식회사

서울·도봉구 수유동 223-41 TEL. 989-4933